

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안내문

예방접종으로 자궁경부암을 예방하세요

사람유두종바이러스

(Human papillomavirus, HPV)는

생식기 감염을 일으키는 흔한

바이러스로, 성생활을 시작한 여성 4명 중

2~3명은 평생 적어도 한 번 이상

HPV에 감염 될 수 있습니다.

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은

만 11~12세에 접종이 권장되며, 권장

접종간격을 유지하여 2회 접종을 완료

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은

지금까지 전세계 74개국에서

국가예방접종으로 도입하여 약 2억 건

이상 접종되었으며, 안전성이 검증된

백신입니다.



권장 접종시기 및 대상

해당 연도에 만 12세이거나 만 12세에 달하게 되는 여아



권장 접종횟수

6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

* 만 14~15세(백신별로 차이)이상에서 1차 접종 시
3회 접종 필요



접종대상 백신

HPV4(가다실)*, HPV2(서바릭스)*, HPV9(가다실9)

*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 백신: HPV4(가다실), HPV2(서바릭스)

※ 예방접종 시 동일한 백신으로 접종을 완료하도록 합니다.



- 만 12세 여아는 전국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에서 사춘기 성장발달과 초경 등에 대한 표준 여성 청소년 건강상담과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을 6개월 간격으로 2회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.

※ 지정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(<https://nip.cdc.go.kr>)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

예방접종 주의사항

- 예방접종 전 반드시 의사의 예진을 받도록 합니다.
- 접종부위는 청결하게 유지합니다.
- 예방접종 후 심한 알레르기반응이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이 필요합니다.

청소년에서 백신 접종 후 통증으로 일시적으로 실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, 이는 다른 예방접종 후에도 발생할 수 있으며 충분히 예방이 가능합니다. **등반이가 있는 의자에 앉거나 누워서 접종하고, 예방접종 후 20~30분 동안 접종기관에 앉아있거나 누워있도록 합니다.**

다음의 경우 예방접종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. 의사와 상의하세요.

- 중등도 또는 심한 급성기 질환
 - ※ 중등도 이상의 심한 급성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질환이 호전될 때까지 접종을 연기하나 상기도 감염 등 가벼운 질환을 앓는 경우는 일정대로 접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.

다음의 경우 예방접종을 받으면 안됩니다.

- 이전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 후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
-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성분에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경우

○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면 신고해 주세요.

- 예방접종 후 생기는 이상반응은 대부분 가볍고 수일 내에 회복됩니다. 다만, 증상들이 심해지거나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, 또는 그밖에 다른 전신 이상반응이 생기는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보건소에 신고 또는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 (<https://nip.cdc.go.kr>)의 '예방접종 후 이상반응'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해 주세요.
- 국가에서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면 예방접종과의 관련성을 심의하여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진료비를 보상하는 「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」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

질병관리본부

KMA 대한의사협회
KOREAN MEDICAL
ASSOCIATION

예방접종전문위원회

사람유두종바이러스란?

- 감염성이 높은 병원체로 주로 성 접촉을 통해 전파되며, 피부나 생식기 점막 등을 감염시켜 남녀 모두에게 생식기 사마귀, 관련암(자궁경부암, 외음부암, 항문암, 두경부암 등)과 그 전암병변 같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
- 감염 시 대부분 무증상이고 1~2년 내에 자연 소멸되지만 5~10%에서는 지속 감염을 일으키고, 지속 감염은 수년에서 수십년 후 암 발생의 위험 요인이 됩니다.
- 사람유두종바이러스는 암을 일으킬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유전형과 암을 거의 일으키지 않는 저위험 유전형이 있으며, 고위험 유전형 중 16, 18형이 자궁경부암 원인의 약 70%와 관련됩니다.
*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후에도 백신에 포함되지 않은 유전형 감염에 의해 자궁경부암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, 정기적으로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.
- 자궁경부암 및 자궁경부 전암병변이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질병부담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. 우리나라에서 매년 3,500여명의 자궁경부암 환자가 발생하고 약 900여명이 사망합니다.

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후 발생 가능한 이상반응

- **국소 반응:** 접종 부위 통증, 부어오름, 발적 등
* 접종부위 통증이 비교적 흔하게 보고(약 80%)되고 있고,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느껴지거나 일상 활동을 방해할 정도의 통증이 약 6%에서 보고되었으나 대부분 수일 내에 특별한 치료 없이 회복됩니다.
- **전신 반응:** 발열, 메스꺼움, 근육통, 실신, 매우 드물게 아나필락시스 등
*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포함한 중증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지만 매우 드물고, 다른 영유아 백신과 비교하여 특별히 빈도가 높지 않습니다.

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안전성 관련 안내

- 많이 신고된 이상반응으로 일시적 실신이 있으나 앓거나 누워서 접종받고, 접종 후 의료기관에서 경과관찰 등으로 예방 가능합니다.
- 예방접종을 통해 향후 자궁경부암이나 자궁경부 전암병변을 예방하는 효과(이득)*가 큼니다.
*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은 고위험 HPV 16, 18형 감염, 백신 유형과 관련된 자궁경부 상피내암(0기암, carcinoma in situ) 및 자궁경부 상피내 선암종(Adenocarcinoma in situ)에 대해 높은 예방 효과(>90%)를 보입니다.
* 이상반응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접종을 미루는 것보다 예방접종을 통한 사전 암 예방 효과가 비교할 수 없이 큼니다.
- 일본 등 해외의 이상반응 사례로 일부 보호자들이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나 이는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일부 사례들로, 다음과 같이 여러 기관에서 백신의 안전성을 발표하였습니다.
* (WHO) 국제백신안전성자문위원회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은 2006년 허가를 받은 이후 2017년 7월까지 전세계적으로 약 2억 7천도스가 접종되었으며, 미국, 호주, 유럽, 일본 등 전세계적으로 보고된 이상반응 자료 분석 결과 여전히 안전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(2017.7월까지 안전성에 대해 총 7회 검토 및 발표).
* (일본) 복합국소통증 5사례가 보고되었으나 일본 후생노동성 조사 결과 백신과의 관련성은 인정하기 힘들고, 심리 불안반응으로 잠정결론('14.2월, 7월), 일본의 소아과학회, 산부인과학회 등 전문학회 17개 단체에서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의 국가예방접종을 재개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(2016년).
* (국내) 2018년 1월 기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국가예방접종 도입 후 약 67만건 접종 후 53건(0.008%)의 이상반응이 신고되었고, 이 중 심인성 반응으로 일시적인 실신 및 실신 전 어지러움 등의 증상(31건)이 가장 많았습니다.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현재까지 안전성이 우려되는 중증이상반응 사례군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.

발행일자 : 2018. 2. 13.

예방접종 편의서비스 4종세트



예방접종의 모든 것
예방접종도우미
nip.cdc.go.kr



스마트하게 관리하는
모바일 앱 서비스
'예방접종도우미' 검색 후 다운로드



클릭 한번으로 무료발급!
온라인 예방접종 증명서
'민원24' 사이트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



다음 접종 · 지연 접종
휴대전화 알림문자
(Recall/Remind)

건강한 내일을 여는 예방접종